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OON JONGJU 윤종주

Archiving

STORIES CONTINUED

BANG JEONG A BANG
JEONG A BANG JEONG
A BANG JEONG A 방정아

LI SETBYUL

이셋별

OH SERIN

◆ 오세린 ◆

SEO WONMI

| 서원미

DIA

홍정아

HONG JUNG OUK

유정민

YU JEONGMIN

아카이빙 : 다시, 이어지는 서사

2026. 10. 24- 2026. 11. 21

한 점의 작품을 마주하는 일은 작가가 지나온 시간의 한 장면을 만나는 일이다. 화면과 형태 안에는 오랜 질문과 선택, 반복과 실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한 번의 전시에서 모두 읽어내기 어렵다. 전시가 끝난 뒤에도 작가는 작업을 이어가고, 이미 보았던 작품 역시 이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아카이빙: 다시, 이어지는 서사》는 이러한 시간의 연속성에서 출발하는 디아 컨템포러리의 첫 번째 아카이빙 프로젝트이다. 올해 기획한 《디나미스》, 《프로타고니스트》, 《Unbalanced Balance》에서 시작된 만남을 이어가며, 방정아, 서원미, 오세린, 유정민, 윤종주, 이셋별, 홍정욱의 작품과 기록을 함께 소개한다. 특정한 전시의 주제 안에서 조명했던 작업을 다시 펼쳐 보고, 그 이전과 이후에 이어져 온 작가의 탐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시 바라보기’는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작품 앞에 서는 행위이자, 다른 기록과 경험을 통해 그 작품을 새롭게 읽는 과정이다. 과거의 작업에서 현재의 관심사를 발견하거나, 익숙한 형식 안에서 변화의 단서를 찾아보는 일은 작가의 세계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작품 사이의 연결과 차이를 따라가며, 관람객은 한 작가의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에는 작품과 함께 과거 전시 도록, 출판물, 리플릿, 영상, 비평문과 기록 자료가 놓인다. 도록에는 작품의 이미지뿐 아니라 당시의 전시 구성과 해석,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설명했던 언어가 담겨 있다. 페이지의 순서와 편집, 종이 위에 남은 문장은 한 시기의 작업을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한다. 관람객은 자료를 직접 펼쳐 읽고 서로 다른 시기의 작업을 오가며, 눈앞의 작품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배경과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1·2층의 작품 감상 공간과 2층의 책장·테이블을 활용한 열람 공간은 ‘보다 · 읽다 · 있다’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작품 앞에서 생겨난 질문을 책 속에서 따라가고, 기록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품은 채 다시 작품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제안한다. 작가들의 자료와 DIA가 모아온 아트 북, 커피와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관람객은 각자의 속도로 읽고 머물며 감상을 나눌 수 있다. 갤러리는 작품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그 만남을 천천히 깊게 하는 도서관 같은 공간이 된다.

《아카이빙: 다시, 이어지는 서사》는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위한 시도이다. DIA는 작가와 함께 쌓아온 기록을 다시 열고, 현재의 시선으로 읽으며, 앞으로의 작업을 이해할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개별 전시에서 시작된 만남이 지속적인 관계와 이해로 이어질 때, 기록 역시 새로운 질문을 품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질문과 함께 작가의 다음 시간을 바라보는 첫 장이다.

Archiving : Stories Continued

2026. 10. 24– 2026. 11. 21

To encounter an artwork is to meet a moment in an artist's ongoing practice. Years of questions, choices, repetition and experimentation are held within its images and forms, yet a single exhibition can only reveal part of that history. Artists continue working after an exhibition closes, and works we have already seen acquire new meanings in light of what follows.

Archiving: Stories Continued, DIA Contemporary's first archival project, begins with this continuity. Extending the encounters initiated through this year's exhibitions—DYNAMIS, PROTAGONIST and Unbalanced Balance—it brings together artworks and records by Bang Jeong A, Seo Wonmi, Oh Serin, Yu Jeongmin, Yoon Jongju, Li Setbyul and Hong Jung Ouk. The project revisits works previously presented within particular curatorial themes, exploring the artistic inquiries that preceded those exhibitions and have continued beyond them.

Here, revisiting means returning to an artwork over time and reading it anew through other records and experiences. Discovering the roots of a current concern in an earlier work, or recognising signs of change within a familiar form, offers a fuller understanding of an artist's practice. By following connec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works, visitors can trace how an artist's language has developed and expanded.

Artworks are presented alongside past exhibition catalogues, publications, leaflets, critical essays and archival materials. Catalogues hold more than reproductions: they preserve exhibition arrangements, interpretations and the language artists used to describe their work at a particular moment. The sequence of pages, editorial choices and words printed on paper allow us to encounter that work again within its context. Visitors are invited to browse these materials and move between different periods, discovering histories and relationships that may not be apparent in the artwork alone.

The artwork displays across the first and second floors connect with a reading area centred on the second-floor bookshelves and tables, following three guiding actions: Look · Read · Connect. A question prompted by an artwork can be pursued within a book; a story discovered in its pages can lead the viewer back to the work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With artists' archives, art books from DIA's collection, coffee and music, visitors can read, linger and share their impressions at their own pace. The gallery becomes a library-like space in which encounters with art have time to deepen.

Archiving: Stories Continued seeks to sustain interest in artists and their work beyond the duration of an exhibition. DIA reopens the records accumulated alongside its artists, reads them from a present-day perspective and offers them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work to come. As encounters begun in individual exhibitions develop into lasting relationships and deeper understanding, these records give rise to new questions. This project marks the opening chapter of following those questions into the artists' next stages.

ARCHIVING

아카이빙

BANG JEONG A

방정아 B. 1968

방정아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부 졸업 후 동서대학교 IT & 영상 전문대학원 영상디자인과를 졸업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광주, 2025), 맥화랑(부산, 2025), 논베를린(베를린, 독일, 2024), 신세계 센텀 시티 갤러리(부산, 2023), 봉산문화회관(대구, 2023), 비온후 책방(부산, 2020), 예술 지구 P(부산, 2020), 부산시립미술관(부산, 2019), 복합문화공간 에무(서울, 2018), 자 하미술관(서울, 2017), 공간화랑(부산, 2016)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2026), 뮤지엄헤드 (서울, 2026),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24), 부산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4), 수원시립미술관(수원, 2024), 경남도립미술관(창원, 2023), 부산현대미술관(부산, 2023), MMK(부산, 2023), F1963 석천홀(부산, 2023; 2018), 선셋미술관(신안, 2023),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2022), 돌문화공원(제주, 2022),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21), 뮤지엄산(원주, 2020), 자하미술관(서울, 2020), 광주비엔날레(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8) 등에 서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부산시립미술관, 대전 시립미술관, 경남 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BANG JEONG A
방정아

서로 투사하기
2026
Acrylic on canvas
160 x 177.5 cm



이셋별은 서울산업대학교 조형예술과와 2002년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갤러리SP(2025, 서울), 드로잉룸(2022, 서울), 인디프레스 갤러리(2021, 서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2019, 청주), 대전테미예술허작센터(2017, 대전)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디아컨템포러리 (2026, 서울), 예술공간이아/포지션민 (2023, 제주), 부산현대미술관(2022, 부산), 무안오승우미 술관(2022, 무안), 서울대미술관(2022, 서울), 백해영 갤러리(2022, 서울)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구예술발전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대전테미예술허작센터 의 레지던시 등에 입주하여 작업한 이력이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부산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성남큐브미술관 등을 비롯해 다수의 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LI SETBYUL
이셋별

우리는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2026

Oil on canvas, Mother-of-Pearl Frame
175.5 x 97.5 cm



ARCHIVING

아
카
이
빙

SEO WONMI

서원미 B. 1990

서원미는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금호미술관(서울, 2026), 아터테인(서울, 2024), 라훤(서울, 2023), 파이프 갤러리(서울, 2022), 보안여관 신관(서울, 2017)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라훤(서울, 2025), 갤러리2 중선농원(제주, 2025), ArteK(서울, 2025)에서 2인전에 참여했으며, 디아컨템포러리(서울, 2026), 아트센터 화이트블럭(파주, 2025),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서울, 2024; 2020), 토탈미술관(서울, 2023),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파주, 2023), 포스코미술관(서울, 2022), 자하미술관(서울, 2022),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2021), 금호미술관(서울, 2021; 2020)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종근당 미술상과 SDU 미술상을 수상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호미술관 금호아트스튜디오 15기 입주 작가로 활동하였다.



SEO WONMI
서원미

녹색 오후
2026
Oil on linen
91 x 116.8 cm



ARCHIVING

아카이빙

SERIN OH
오세린 B. 1987

오세린은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와 금속공예 학사를, 동 대학원에서 금속공예 석사를 마쳤다. 작가는 파운드리 서울 (서울, 한국, 2022), 세움아트스페이스(서울, 한국, 2018), 경남도립미술관(창원, 한국, 2017), 가창창작스튜디오; Hangzhou Zhe Mu Hui Art Space,(대구, 한국; 항저우, 중국, 2016), 갤러리에담 컨템포러리(서울, 한국, 2012)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2026),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2026), THE third (서울, 한국, 2026), 공간파도(서울, 한국, 2025),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한국, 2024), 한솔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24), 서울공예박물관(서울, 한국, 2024) 등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푸른문화재단 등이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Serin Oh
오세린

가장자리 의 형태
2026

Glazed ceramic, silver, faux
pearls, acrylic paint
50 x 48 x 15 cm



DIA

ARCHIVING

아카이빙

YOON JONGJU

윤종주 B.1971

윤종주는 계명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프람프트 프로젝트, 더 그레이트 컬렉션, 을 갤러리, 에이치픽스 도산, 대구문화예술회관, 굿스페이스, 갤러리 담 등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미묘》(예화랑, 서울, 2024), 《속삭이는 꿈》(달서갤러리, 대구, 2024), 《정•정》(아트프로젝트 씨오, 서울, 2024), 《Endless, Nameless》(헬렌 제이 갤러리, LA, 2024), 《In time》(갤러리 모이소, 서울, 2023) 등 다수의 기획전의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대구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대구문화예술회관, 참저축은행, 디지스트 등에 소장되어 있다.



Yoon JongJu
윤종주

cherish the time-voyage 24050004
2024
acrylic, ink, medium on canvas
90x100cm
each) 90x20(x5)cm

ARCHIVING

아카이빙

HONG JUNG OUK

홍정옥 B. 1976

홍정옥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과와 일반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 대학원(UCL Slade School of Fine Art, UK)에서 석사 학위(MFA)를 받았다. 'plano-' (리안갤러리, 서울, 2019), 'in situ' (김종영 미술관, 서울, 2013), 'ball of line' (룩스 갤러리, 서울, 2003) 등에서 11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한미 갤러리(서울), Babel(트론헤임, 노르웨이), 일우 스페이스(서울), 경기도 미술관(안산), OCI 미술관(서울), Centre d'Art Tecla Sala(바르셀로나), James Freeman Gallery(런던)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주요 수상으로는 김종영 미술관 오늘의 작가(2013, 김종영 미술관), Guasch Coranty International Painting Prize 2010(finalist, 바르셀로나), New Contemporaries 2009(finalist, 런던), 제 4회 송은미술대전(2004, 입선, 서울)이 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의 LKV(Lademoen Kunstnerverksteder, 2015),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4),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2013)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OCI 미술관, 현대카드, 유진투자증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 소장되어 있다.



Hong Jung-ouk
홍정욱



moreish
2025
Acrylic color, wire and wire clothing on
shaped canvas
127 x 129 x 9 (H) cm

DIA

유정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개인전 《STACK》(디아 컨템포러리, 서울, 2024)을 개최했으며, 《연결의 형태》(삼원갤러리, 2026) 《문제적 공예》(아트비트갤러리, 2020), 《Unparasite》(플랫폼엘, 2021), 《THèSE》(분더샵, 2021), 《ART-IST: Ways of Seeing》(분더샵, 2022), 《Spectrum of Seating》(DDP, 2022),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국립한글박물관, 2022) 등 주요 전시에 참여하였다.

또한 제1회 서울조각상 《경계 없이 낮설게》의 선정 작가 10인에 포함되며, 목조형가구를 기반으로 한 작업의 가능성을 조각의 영역에서도 인정받았다. 작품은 Disc donut coffee stand(부산), 유현준 건축 사무소, 남양유업, 싱가포르의 The Work Project(TWP)에 소장되어 있다.



Yu Jeongmin
유정민

ARCH SERIES 35(greyish red)
2026
Plywood, resin
520 x 295 x 1860(H) mm



DIA

DIA

DIA Contemporary Seoul
DIA Project Seoul

www.diacontemporary.com
www.diaartproject.com
[@dia.contemporary](https://www.instagram.com/dia.contemporary)